

지역 소식 통



부안경찰, 장애인 근로자
성범죄 · 학대 예방 교육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는 지난 10일 사회적 기업 바다의 향기 장애인 근로자, 종사자 등 5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범죄예방교육은 성범죄 유형 및 대처방법, 사이버 성범죄, 피해 신고방법, 장애인 학대 유형,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적 교육 자료를 활용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주제로 경제 관련 범죄를 사례 중심 소개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강조 교육했다.

최기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정읍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 리더십 향상과 주민총회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역할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수립 · 실행하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기구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선정

고창군, 북부권에 5년간 300억 투입... 체육관 건립 등 생활인구 유입 목표

‘체육관 건립’ 등 고창군 북부권(흥덕면·성내면)에 향후 5년간 300억원이 투입돼 혁신적인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형)’ 공모사업에 흥덕·성내면이 최종 선정됐다.

‘통합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의 안정된 정주 환경조성과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재생활거점’을 추가로 설정해 관계·생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통합·특화형 사업이다.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300억원(국비 210억, 도비 27억, 군비 63억)을 투입한다.

흥덕면 소재지 일원에는 △흥덕 체육관 건립 △작은 목욕탕 신축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흥덕 문화복지관(하모니센터) 증축 등을 통해 북부 생활권의 정주 환경 개선 및 통합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화된다.

성내면 동림저수지 일원에는 △체류형 복합단지 △체합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더불어 노을과 절재 군무 테마로 △런케이션(Learn+Vacation, 학습과 여가를 결합

한 개념)센터를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고창군의 관계·생활 인구로 유입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고창군 북부 생활권에 혁신적인 변화와 성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복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관계 인구 유치를 통해 미래를 여는 고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이 힘이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본격 전개

정읍시, 인구 10만 유지 · 생활인구 50만 달성 목표

인구 10만 유지와 생활인구 50만 달성을 목표로 정읍시가 전입유도, 체류 확대, 외국인 정주 지원 등 3대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2일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전입을 유도

하는 ‘정읍사랑 주소찾기’ △사계절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정읍사랑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읍사랑 함께살기’를 핵심 전략으로 한다.

‘정읍사랑 주소찾기’는 정읍에 거주하면서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입지원금, 출생 축하금, 육아수당,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청년 이사비용 및 이사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장수 어르신 축하물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1부서 1기관 전담제’를 도입해 유관기관 방문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정읍사랑 머무르기’는 축제와 행사 규모 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 전국대회 및 전시후원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맞춤형 취업박람회 성료... 구직자 · 기업 ‘윈윈’

현장 면접 · 채용 컨설팅 · 면접비 지원 등 실질적 취업 지원에 구직자 호응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정읍시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며 현장 채용과 맞춤형 상담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정읍시와 정읍 일자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청년,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는 채용관과 홍보관, 부대행사로 구성돼 구직자의 실질적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박람회에 앞서 일자리지원센터는 (주)케이넷을 비롯한 9개 기업 ·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내 지속 가능

한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현장 채용관에는 지역 기업과 3대 국책 연구소 등 20개소가 참여해 사무직, 생산직,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기업 소개 영상을 LED 전광판으로 상영해 구직자의 이해를 도왔고,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적극행정 규제개선 주목 받다

고창군, ‘인천공항행 버스운행’ 행안부 신규사례 선정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한 지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을 선정했다.

고창에선 지난 3월에서야 고창-인천 공항간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이전에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해외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다갈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군민 이동권 보장 △관광객 접근성 제고 △세외수입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행안부는 매 분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사회통합 등의 효과가 큰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번 1분기에는 전국 560건의 사례 중 고창군을 포함한 사례 30건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전정책 이해 · 실무역량 강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경주시 일원서 워크숍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원전정책 이해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23개 회원 지자체의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해 원전 운영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원성원자력홍보관에서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방사는 방재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상상황 대응 체계와 주민 보호 방안 등 현장 중



심의 실무 지식을 습득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경영단 류승형 경영전략부장의 특강에서는 최근 원전정책 동향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첨단바이오 창업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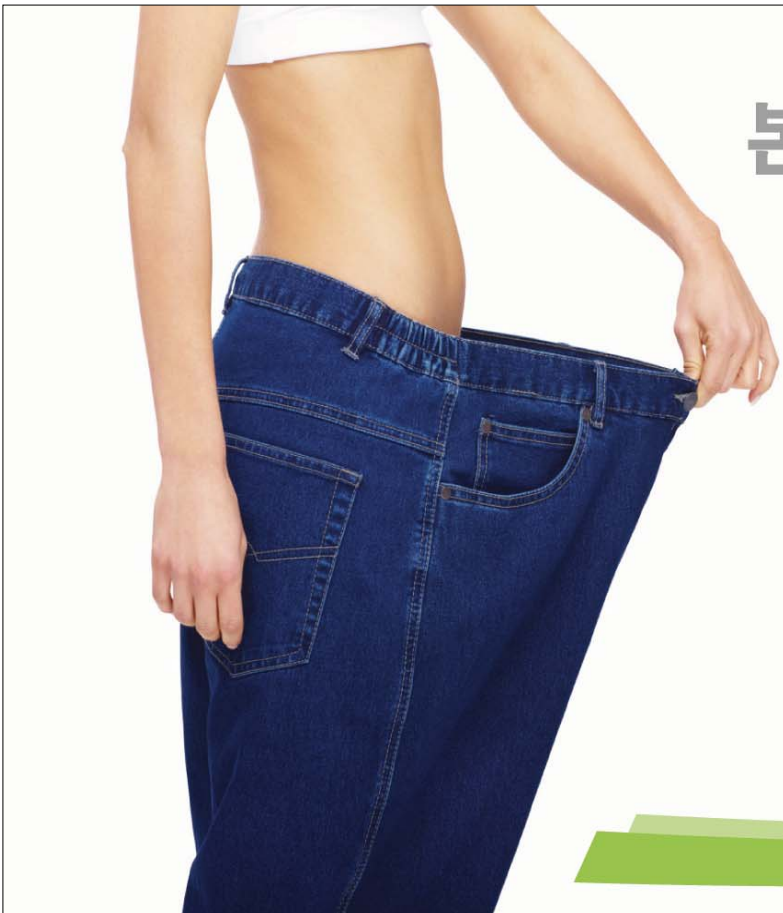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정읍시가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첨단바이오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개소하며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읍시는 6월부터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층에 마련된 119㎡ 규모의 개방형 공유사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코워킹스페이스에는 총 8개 기업이 입주하며, 현재 창업기획자와 펀드운용사가 입주를 마쳤다. 출기세도 유전

자치료제 개발기업인 ‘셀레브레인’을 비롯해 다양한 바이오와 ICT 기반 스타트업 6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특히 창업기획자인 (주)벤투라펀드 운용사인 로간벤처스가 기업 투자 연계와 액셀러레이팅 역할을 맡는다. (주)벤투라펀드는 벤처투자 경력을 가진 임원진과 대기업 공식 파트너 경험을 살려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계획이다. 로간벤처스는 총 77억 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이며, 정읍시로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